

“꾸준히 노력하는 프로 바둑기사 되겠습니다”

●프로입단성공 한국바둑중학교3학년 임지호군

유래없는 가장 아름다운 ‘육각형 기풍’의 소유자 한국바둑중·고등학교 최근 ‘15호 프로기사’ 배출 바둑 입문 9년만에 성과...“프로기전 본선 오를 것”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프로 바둑 기사 가 되겠습니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천 한국바둑중학교 3학년 임지호(16·사진) 학생이 프로 입단에 성공했다. 한국바둑중·고등학교에서 배출한 15번째 입단자다.

임군은 최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0회 지역 15세 이하 입단대회’ 최종국에서 윤준우(14·한국바둑중 1학년) 후배를 꺾고 입

단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는 28명이 출전해 지난달 28일 예선을 시작으로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1조 3-4명이 2승을 하면 진출하고 2배를 하면 탈락하는 방식)으로 4강까지 진행된 다음, 4강과 결승전은 토너먼트로 펼쳐져 우승자 1명만 입단하게 된다.

임군은 대전 출생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둑에 입문해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지역연구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바둑중학교에 진



학해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문 9년만에 프로 입단에 성공했다.

입단 직전에 제52·53회 전국소년체전 15세 이하 남자단체부 금메달 획득, 제10회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 중등부 우승으로 기량을 뽐냈다.

임 초단은 “이전 입단대회 결승국에서 패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입단하게 돼 기쁘다. 이번에는 자신이 있었다”며 “부모님과 지도해준 한국바둑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는 프로기전 본선에 오르는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지도교사 민상연 6단은 임 초단에 대해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유래가 없는 가장 아름다운 육각형의 기풍을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 프로기사로서 특별한 기대를 한다”고 격려했다.

/김대이 기자

윤대중 여수 쌍봉지구대 경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귀감’



윤대중(사진)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경감이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의 현금 3천500만원 피해를 막아내 주목받고 있다.

1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오경 쌍봉지구대 앞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던 시민을 발견한 윤 경감은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통화 중이며 거액을 건네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경감은 신속히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했다. 또 계좌와 카드 사용을 정지시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윤 경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즉시 끊고 기관에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김성관 삼진일렉스 회장, 영광곳간에 1천만원 기탁

영광군은 “최근 ㈜삼진일렉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가정을 위해 1천만원의 기탁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영광곳간에 온기를 채웠다”고 12일 밝혔다.

김성관 회장은 영광군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인재육성 장학금을 기탁하는 한편, 2020년 코로나19 성금 500만원과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영광군의 공식모금처인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에는 2022-2023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 기부로 “지역의 위기를 군민과 더불어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시 영광곳간에 기부하게 됐다”고 전하며 지속적으로 고향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김성관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웃는 따뜻한 영광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글로벌 냉동식품-담빛곡간 ‘지역 농업발전’ 협약

글로벌 냉동식품과 농업회사법인 담빛곡간이 지역농산물 가치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2일 ㈜글로벌 냉동식품에 따르면 최근 농업회사법인 ㈜담빛곡간과 농업 분야의 혁신과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상품 연구개발을 통한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냉동식품은 차수국익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비롯한 유통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담빛곡간은 차수국익 품질 관리, 공급 체계 구축, 농업 관련 데이터 등 자원 공유를 돕는다.

채경일 담빛곡간 대표는 “차수국익 일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 구축은 농업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 글로벌 냉동식품 대표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뢰와 양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해군 제3함대사령부, 새해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해군 제3함대사령부(이하 ‘3함대’)는 “최근 사흘간 장병 및 군무원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동절기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3함대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협력해 사령부와 예하 부대 주요 근무지 5곳에서 헌혈을 진행했다. 또한 장병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헌혈 버스를 운영해 많은 부대원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헌혈에 참여한 3함대 재정관리실 백범진 중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헌혈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 깊다”며 “3함대 부대원들의 작은 실천이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광주·전남혈액원 간호사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단체 헌혈이 크게 줄면서 혈액 수급난이 심각했는데, 3함대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전남도립대-라오스 폴리텍대 ‘드론기술·교육’ 협약

전남도립대학교는 12일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라오스 폴리텍 대학(Poly Technic College)과 드론 기술, 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양국의 드론 산업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협약식에선 전통 혼 단장을 비롯한 전남도립대 관계자와 라오스 폴리텍대학 교수진,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립대 사업단의 드론 첨단 기술 시연과 라오스 현지 교육 프로그램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드론 시연에선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촬영 및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3D맵핑 기술이 주목 받았다.

이 기술은 노후 댐 관리, 관광 개발, 산림·농업 관리 등 라오스 현지 산업에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며 실질적 응용 방안을 제시했다.

드론 관제 시스템과 코딩 체험을 공유하며 라



오스 폴리텍대학 드론 학과 신설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 전략도 논의했다.

두 대학은 앞으로도 드론 학과 신설, 교육 콘텐츠 공유, 국제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국제 교육 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장현범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은 “라오스 폴리텍대학과의 협약은 전남도립대학교의 국제적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양국이 협력해 드론 기술과 교육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인천호남향우회와 고향 발전 소통·화합

전남도는 지난 9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호남향우회총연합회 신년 하례회에서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00만 인천 향우가 새해를 맞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500여명의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호남향우회는 1961년 창립했다. 향우를 한 마음으로 단결시킨 구심점이자 전남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명석(㈜엠에스오파 대표) 인천호남향우회

총연합회회장은 “지역 화합을 위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관계자들과 향우회 소속 회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100만 향우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향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인천 향우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전남이 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향우들이 자랑스러워하고 후손에게 당당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대한한약사회 등 의료계 ‘제주항공 참사’ 나눔 잇따라

전남도는 12일 “대한한약사회가 지난 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 상당의 한방의약품을 기부하는 등 의료계의 헌신적인 나눔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된 한방의약품은 우광침심환 등 3종류로 사고 피해에 따른 체력 회복과 심리적 안정, 통증 완화 등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도의사회는 피해자 가족을 위한 수액 처방 및 투여를 진행하고 전남도한의사협회는 침 치료와 3천만원 상당의 한방의약품 지원을 통해 환자의 몸과 마음을 돌봤다.



전남도약사회도 4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지원과 복약 상담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신체적 회복을 돕는 데 힘을 보탰다.

/김재정 기자



담양 금성초 학생회, 이웃사랑 물품 기탁

담양군 금성면사무소는 “최근 금성초등학교 학생회로부터 알뜰바자회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이불 15채를 기탁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금성초 학생회는 학생회, 교사, 학부모와 함께 알뜰바자회를 운영해 거둔 90여만원의 수익금으로 학생들의 뜻을 모아 이불을 구매해 금성면사무소에 전달했다.

김미정 금성초등학교교장은 “학생들이 알뜰바자회를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눔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과정을 경험하며 따뜻한 마음을 품은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현기 금성면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어줬다”며 “전달받은 이불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경제일자리재단-충북기업진흥원 협약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12일 “지난 9일 충북도기업진흥원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광주공공배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을 방문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광주지역에서 시작된 ‘배민 독립선언’과 광주공공배달업의 운영 성과 및 배달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효과성을 공유했다. 더불어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공공배달업의 운영 노하우가 타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배달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협력 모델이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은솔 기자

결혼

▲김명철·이정열씨 아들 정석군, 강희철(기아오트랜드 광주)·장정씨 딸 민지양=18일(토) 오후 4시 제이아트웨딩컨벤션 3층 페디스홀(광주 서구 풍서로209).

▲장영열·김매순씨 장남 승빈군, 김동진(담양군보건의료원)·이미영씨 장녀 정민양=18일(토) 오후 1시30분 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 062-364-1234, 010-4008-1264.